

술술 이야기 읽기

교사용 지도서



술술 이야기 읽기

교사용 지도서

발행일	2022. 11.
발행처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
발행인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장
저자	김수지 · 김인숙 · 박미라 · 서화진
편집인	서울특별시문해교육센터 민병철, 최민음
주소	(본원) 서울특별시 마포구 새창로7(도화동) 14층
전화번호	02,719,6017
홈페이지	slei.seoul.kr

본 제작물은 저작권자와의 협의에 따라 발행했습니다.

차례

1부 총론

01 성인문해 읽기 교재의 개발 방향 및 구성 체제 3

개발 방향 3

구성 체제 5

교재의 활용 6

02 읽기학습에서 나타나는 성인문해학습자의 특성 8

음운 인식에 취약하다 8

글자를 보고 읽지 않고 떠오르는 단어로 읽는다 9

어휘가 부족하다 9

읽어도 의미 파악이 어렵다 10

03 성인문해학습자를 위한 읽기 수업 전략 11

음독하여 읽기 11

단어 파악하기 12

내용 파악하기 12

04 읽기학습에서 유의할 점 16

학습자가 무조건 읽고 쓰려고만 할 때 16

학습자의 읽기 유창성을 높이고자 할 때 17

학습자의 사투리나 잘못된 발음을 교정하고자 할 때 17

생활 경험과 연관된 학습 재재를 활용할 때 18

2부 지도의 실제

05 『술술 이야기 읽기 1: 시』 21

개요 21

구성 21

활용 23

06 『술술 이야기 읽기 2: 옛이야기』 28

개요 28

구성 및 주요 내용 29

활용 33

07 『술술 이야기 읽기 3: 서울 이야기』 37

개요 37

구성 37

활용 40

부록 45

1권 수업 지도안 예시 47

2권 수업 지도안 예시 49

3권 수업 지도안 예시 52

참고 문헌 55

1부 총론

01

성인문해 읽기 교재의 개발 방향 및 구성 체제

개발 방향

성인문해교과서의 보완 활용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이 성인 문해교육에 대한 지원으로 성인 문해학습자를 위해 읽기 교재를 개발했다. 기존의 문해교과서는 차시별, 교과별 요소 등을 고려하여 한정된 범위 내에서 교육 내용을 구성했고 일정 수준과 기간에 맞는 교육을 하는 것을 목표로 구성되었다.

한편 문해학습자의 경우 교과서 외 다양한 읽기 경험을 갖기가 어렵다는 한계를 갖고 있었다. 시판되는 책들은 성인 대상일 경우 글씨 크기가 작고, 아동 대상일 경우 글씨 크기는 크지만 내용이 성인에게 적합하지 않다. 성인 문해학습자가 문해력을 키우기 위해 다양한 읽기 지문들을 선택해서 읽기 어려운 환경이다.

이번 읽기 교재 개발은 ‘문해학습자들이 어떻게 하면 글을 겁내지 않고 자신 있게 잘 읽을 수 있을까?’라는 고민에서 출발했다. 문해교육을 통해 한글을 어느 정도 깨치기는 했지만 문장의 뜻을 이해하고 다양한 문장을 자연스럽게 소리 내어 읽기까지는 대부분의 학습자들에게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본 읽기 교재는 이러한 학습자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쉽고 재미있는 읽기 자료를 통해 한글 문자 해득은 물론이고 기

초적인 읽기 능력을 기르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성인문해교과서와 연계하여 학습자에게 다양한 읽기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보조 교재 또는 심화 교재로 활용 가능하나, 무엇보다 순수하게 문해학습자의 읽기를 위한 교재라는 의미가 있다.

성인문해학습자의 읽기교육에 중점

아동을 위한 책은 차고 넘친다. 어떤 책을 고르는 게 좋은지 알려 주는 책도 많다. 최근 노인 인구가 증가하면서 큰 활자체 책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출판사에서도 출간을 조금씩 늘려 가는 상황이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큰 활자체 책은 많지 않고, 더군다나 성인 문해학습자를 위한 큰 활자체 책을 찾기는 더 힘들다.

이와 같은 출판 환경은 성인 문해학습자의 다양한 읽기 텍스트 선택에 어려움으로 작용한다. 본 읽기 교재는 문해 수업 현장에서 주로 다루는 문학의 주요 장르를 포괄해 시와 옛이야기를 포함했고, ‘서울’을 주제로 한 설명글까지 그 분야를 넓혔다. 더불어 학습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문장은 되도록 쉽고 간결하게 집필했다. 또한 일반적인 교과서 형태처럼 단원별 학습 목표와 학습 활동을 제시하지 않고, 학습 여건에 따라 학습자 수준에 맞춰 글을 여러 번 읽어 보면서 점차 자연스럽게 글을 읽을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성인 문해학습자들에게 읽기의 즐거움을 느끼게 하는 동시에 다양한 주제의 읽기를 통해 지식을 쌓고 읽기 능력 자체를 개발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서울 지역의 특성을 반영

우리는 익숙하고 당연한 환경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가 종종 있다. 아마 서울이라는 도시에 대해서도 비슷할 것이다. 서울은 인구 1000만의 도

시로 모든 것이 집중돼 있고 풍부한 인프라를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오랜 역사를 가진 도시다. 문해학습자 역시 서울에서 생활하고 있는 주민이지만 정작 서울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본 읽기 교재에서는 서울의 궁궐과 거리 이름 등 학습자와 친숙한 소재를 다뤄 서울의 역사와 지명의 유래 등을 알아보도록 했다. 서울 시민들이 매일 이용하는 거리에도 그 나뉠의 유래와 역사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신기하기도 하고 새롭게 보일 것이다.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처럼 자신이 생활하고 있는 서울의 익숙한 곳들이 어떤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품고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도 유익하고 즐거운 일일 것이다. 읽기 교재는 이처럼 서울이라는 지역의 특성과 서울에 얽힌 이야기를 담아내고자 했다.

구성 체제

읽기 교재는 총 3권으로 개발했다. 1권은 ‘시’, 2권은 ‘옛이야기’, 3권은 ‘서울 이야기(설명문)’로 구성했다. 기초 과정을 마친 학습자가 다양한 주제의 글을 읽어야 할 때 권별로 읽거나 각 권에서 글을 골라 읽을 수 있다. 한 권 안에도 분량이나 난이도에 차이가 있으므로 자율적으로 선택해서 활용할 수도 있다.

1권은 40편의 ‘시’로 구성해 긴 글 읽기를 부담스러워하거나 어려워하는 학습자에게 적절할 수 있다. 시각적으로 보이는 글의 양이 실제 읽기 이해도의 난이도와 상관없이 부담 없이 받아들여질 수도 있다.

2권은 ‘옛이야기’로 구성했다. 이야기가 재미있고 흥미로우며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없어 읽기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학습자가 복잡하고 어려운 글을 읽으며 내용 파악을 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그런

구분	문해학습자를 위한 읽기 교재			교사용 지도서
	1권	2권	3권	
장르	시	이야기	설명문	
단원 구성	시 40편 1부 새봄 2부 꽃시계 3부 늦가을 편지 4부 내가 참 좋아	동화 30편 1부 이솝우화 2부 우리나라 옛이야기(1) 3부 우리나라 옛이야기(2) 4부 외국 동화	대주제 4개 소주제 19개 1부 서울의 궁궐이야기 2부 서울의 역사이야기 3부 서울의 음식골목 4부 한국의 밥상 이야기	수업의 실제 / 부록 (수업 지도안)

데 동화나 옛이야기 같은 글은 재미있게 읽고 비교적 쉽게 내용을 파악하는 읽기 연습의 도구로 활용해 볼 수 있다.

3권은 서울을 주제로 한 ‘설명문’으로 구성하여 서울의 역사와 지리를 알아보고 식견을 넓힐 수 있도록 했다. 학습자에게 익숙한 서울에 대한 지식을 글을 통해 인식하고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교재의 활용

본 읽기 교재에서 성인문해교과서와 관련된 내용을 뽑아 수업에 활용할 수도 있고, 읽기 교재를 수업에 대한 흥미를 높이는 지문으로도 활용 가능하다. 주제와 글의 종류에 따라 교사가 적절하게 수업에 활용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본 교재를 구성할 때 일반적인 교과서 구성 체계를 따르지 않았다. 교사가 자율적 판단으로 다양하게 활용할 것을 예상했기 때문이다. 교사는 읽기 교재를 흥미와 재미를 키우기 위해 활용할 수도 있고 교과서로 수업하듯 재구성하고 학습 활동을 추가하여 활용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부록에 각 권별로 학습 활동을 할 수 있는 수업 지도안을 첨부했으니 이를 참고하기 바란다.

02

읽기학습에서 나타나는 성인문해학습자의 특성

문해학습자는 학습 과정에서 여러 특성들을 보인다. 학습 경험에서 영향을 받기도 하고 사회적 배경이나 개인적 특성에 따라 공통의 특성과 개별적인 특성을 보이기도 한다. 본 지도서에서는 이를 모두 다루기보다는 ‘읽기’에서 나타나는 특성을 몇 가지로 정리했다. 문해학습자의 읽기 지도를 할 때 교사는 이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

음운 인식에 취약하다

글자를 보고 인식하여 소리를 내는 것은 글자의 모양과 소리를 대응시키는 능력을 갖췄다는 것이다. 대개 자음과 모음 글자와 소리를 명확히 구분하면 이에 따라 글자를 식별하고 정확하게 읽어 낼 수 있게 된다. 그런데 문해학습자의 경우 자모음을 학습했다 하더라도 명확히 구분하고 글자와 소리를 식별하여 글자를 읽어 내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 뜻을 모르는 한자어로 된 낱말뿐 아니라 뜻이 쉬운 낱말도 음운 구분이 정확하지 않아 읽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는 글을 더듬거리며 읽거나 전혀 엉뚱한 소리로 글자를 오독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 명확하지 않은 음운 인식은 읽기 전체의 유창성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으로 작용한다.

글자를 보고 읽지 않고 떠오르는 단어로 읽는다

문해학습자는 이미 살아온 세월만큼의 지식과 경험을 갖고 있다. 아동은 새로운 사물과 명칭을 함께 알아 가지만 성인 문해학습자는 알고 있는 사물의 명칭을 글자로 확인한다는 점이 다르다. 이런 상황은 때때로 성인 문해학습자가 글을 읽을 때 방해 요소가 되기도 한다. 이를테면 ‘구면’이라는 낱말에서 ‘구’ 자만 보고 자신이 잘 아는 ‘구두’라고 소리 내거나 읽어 버린다. 이 순간이 획 지나가 버리면 스스로 맞는지 틀리는지 인식할 틈도 없다. 조건 반사처럼 자신이 아는 단어가 먼저 떠오르면 그렇게 읽는다. 글자를 꼭 보면서 읽을 수 있게 유의해야 한다.

어휘가 부족하다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어휘는 한정적이다. 다양한 어휘나 전문 용어 등은 대개 책 읽기를 통해서 접하고 습득한다. 그런데 60년 이상을 살면서 다양한 책을 읽어 보지 못했다는 것은 일상 용어 외 어휘가 부족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여 있다는 것이다. 이는 문해학습자가 글을 읽을 때 뜻을 모르는 단어와 마주할 상황이 생각보다 많고, 또 낱말의 뜻을 몰라 내용 파악을 어려워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여지가 크다는 말이기도 하다.

읽어도 의미 파악이 어렵다

우리는 흔히 글을 읽을 때 묵독하면서 글의 내용을 파악한다. 그 과정은

오랜 연습과 훈련의 과정을 거쳐서 어느 시기쯤에는 자연스럽게 이뤄진다. 그런데 문해학습자에게는 이런 훈련의 과정이 없었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물론 문해학습자도 일상에서 사람들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텔레비전 드라마나 자신의 경험을 능숙하게 이야기한다. 하지만 글을 읽을 때 내용을 정리하거나 중요한 내용을 파악하는 것과는 매우 큰 차이가 있다. 문해학습자가 유창하게 소리 내어 읽는 수준에 도달하는 것도 어렵지만, 묵독을 하면서 글의 내용을 파악하는 것은 더더욱 어렵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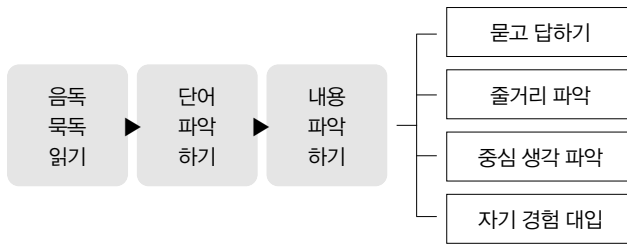
물론 문해학습자의 문해 수준이 어느 정도 성취되었을 때 내용 파악이 수월한 수준에 이르는 경우도 많다. 또 문해력 수준이 높아질수록 글을 읽으면서 동시에 내용을 파악하는 능력이 향상된다. 하지만 글의 내용을 이해하고 파악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소리 내어 읽기에서의 유창성 수준과 비례하여 향상한다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것도 수많은 연습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교사가 유념해야 한다.

03

성인문해학습자를 위한 읽기 수업 전략

읽기 수업은 글을 읽고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읽기 수업에서 진행할 것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는 음독 또는 묵독으로 읽기이고, 둘째는 새롭게 접한 단어와 어휘를 파악하는 것이다. 셋째는 글의 중심 내용을 파악하고 이와 관련된 유의미한 정보들을 파악하는 것이다.

읽기 수업의 흐름도 이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글의 종류에 따라 중심 내용을 파악하는 것과 주요한 정보나 지식을 파악하는 것의 중요도가 다를 수 있다.



음독하여 읽기

읽기 수업의 방법으로는 먼저 텍스트를 읽어 내려가는 것이 일반적이다. 소리 내어 읽는 학습 활동이 여기에 해당된다. 학습자에 따라 음운 현상

이나 철자에 대한 이해가 완전하지 않아 정확한 발음을 어려워하는 경우도 있다. 이때 교사가 발음을 교정하거나 따라 읽는 학습 지도를 할 수 있다. 다만, 문해학습자의 경우 몸에 밴 언어 습관이나 사투리 때문에 교정이 잘 안 되기도 한다. 이런 상황을 충분히 감안하고 지도해야 한다.

음독하여 읽기 후에 묵독으로 이어 갈 수 있다. 사실 읽기에서는 묵독이 일반적인 방법이다. 묵독 과정에서 문해학습자의 읽기 수행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음독을 먼저 진행한다고 봐도 무방하다. 읽기가 어느 정도 되는 단계의 학습자라면 음독 후 묵독의 방법도 병행한다.

단어 파악하기

두 번째 수업 전략은 읽기 수업에서 처음 접하는 단어의 뜻을 설명하고 이해를 넓히는 것이다. 문해학습자는 구어에 익숙하다. 그런 이유로 한자어나 시사 용어, 전문 용어 등에 취약한 편이다. 물론 한 단원에서 뜻을 풀어야 하는 어려운 단어와 숙지해야 할 단어는 다를 수 있다. 이를 판단하는 것은 교사의 몫이지만 문해학습자가 하루에 소화할 수 있는 학습량을 넘어서지 않게 설정하길 권장한다.

내용 파악하기

세 번째 수업 전략은 읽기 수업에서 가장 중요한 과정이다. 글의 중심 생각을 파악하고 이를 구성하는 세부 정보들을 이해하는 것이다.

묻고 답하기

이 과정에서 필수적인 수업 전략의 하나가 지문에 제시된 중요한 정보들을 교사가 묻고 학습자가 답하는 것이다. 지문을 읽으면서 교사가 중간 중간 묻고 답하기를 진행할 수도 있고, 전체 글을 다 읽은 후에 묻고 답하기를 할 수도 있다. 이때 모든 혹은 많은 정보를 묻고 답하기는 어렵다. 글의 중심 생각이나 이를 구성하기 위한 주요 정보와 지식을 중심으로 묻고 답한다. 글을 읽으면서 중요한 단어나 구절에 밑줄을 긋거나 동그라미 등의 표시를 하면 도움이 된다.

줄거리 파악하기

글의 종류에 따라 읽기의 목표를 어디에 맞출지 고려한다. 정보나 지식을 전달하는 글, 교훈이나 시사점을 전하는 글은 읽기 수업에서 다뤄야 할 초점이 다르다. 그러나 두 글 모두 크게 어떤 이야기를 다루는 글인지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문해학습자의 경우 하나의 글을 읽을 때 줄거리를 따라가기보다는 자신의 경험에 기반해 받아들이고 아주 협소한 내용을 전체 내용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를 효과적으로 지도하기 위해서 교사가 단락을 나누어 요약 설명하고 앞 내용과 뒤 내용을 설명해 줄 필요가 있다. 본 읽기 교재에서는 이런 점을 고려하여 문단을 보다 잘게 구분했다.

중심 생각 파악하기

중심 생각 파악 단계는 글을 읽고 무슨 내용인지 먼저 파악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실제로 문해학습자는 글을 읽고 수업을 통해 글의 내용이 무엇인지 파악하게 된다. 이 말은 교사의 지도로 등장인물이나 사건을

확인하고, 어떤 감정이 표현되었는지, 처음 · 중간 · 끝의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되는지 파악하게 된다는 이야기다. 문해학습자는 앞의 내용을 기억했다가 뒤에 나오는 이야기와의 관계를 이해하여 궁극적으로 작가가 무슨 이야기를 전하려 했는지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을 어려워한다. 연습이나 훈련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과정을 교사와 함께 해 보는 것이다. 동화를 읽을 때는 등장인물이나 사건에 유의하고 어떤 교훈을 주는 이야기인지 교사가 묻고 답을 유도해 나간다. 제목을 보고 무슨 이야기가 나올지 상상해 보는 것도 시도해 볼 수 있다. 또 시를 읽을 때는 어떤 감정을 표현하고 있는지 자신의 경험이나 마음과 같은 시구가 있는지 찾아보고 이야기 나누는 데 초점을 둔다. 사실을 다룬 글은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는 낱말이나 문장에 밑줄을 치고 꼭 알아야 할 지식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자기 경험에 대입하기

자신의 경험과 관련된 내용의 글들은 직간접적으로 연관되므로 이에 비추어 이야기가 생성된다. 새로운 정보와 지식이 담긴 글도 학습자에게 특정 의미를 형성하게 되는데, 이 과정을 읽기 수업에서 담아내는 것도 중요하다.

학습자 자신의 삶과 지식이 지문을 통해 재생산되는 과정이자 흡수되고 통합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이때 학습자는 자연스럽게 자유롭게 말하기로 표현하거나 쓰기를 통해 정리하고 통합하기도 한다. ‘수다’를 떠는 이 과정은 문해교육에서 빼 수 없는 학습의 한 과정이다.

도표나 그림 활용

읽기 교재에 포함된 그림과 도표를 보는 방법도 학습이 필요하다. 문해

학습자의 경우 도표 학습 경험이 많지 않고 실제 생활에서 필요성 역시 크지 않다. 문해학습자가 도표나 그림 학습을 어려워할 수 있지만, 세밀 하계는 아니더라도 중요한 정보를 읽는 방법을 연습할 필요가 있다.

04

읽기학습에서 유의할 점

읽기 수업은 문해학습자에게 분명히 효과가 있고 필요한 학습이다. 문해학습자는 일반적인 학습 이력을 가진 학습자와 다른 조건에 놓여 있다. 교사는 이런 차이점을 인지하고 문해학습자의 읽기 지도를 해야 한다. 읽기 수업을 할 때 몇 가지 유의할 점을 짚어 보았다.

학습자가 무조건 읽고 쓰려고만 할 때

문해학습자는 학습에 대한 열정이 너무 큰 나머지 때때로 학습에 맹목적인 모습을 보인다. 글을 읽고 이해하려 하기보다는 무조건 읽고 쓰려고만 하는 특성이 있다. 글을 읽고 내용 파악을 하기 위해서 교사가 지도하는 학습의 흐름을 따라와야 하는데 그럴 때도 교사의 설명을 듣지 않고 혼자 글자 쓰기에 몰두하기도 한다. 그래서 읽기 수업을 할 때는 글을 읽는 이유와 글을 읽을 때 무엇이 중요한지 사전에 설명해야 한다. 줄거리를 파악해야 한다면지 무엇을 말하려고 글을 썼을지 등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을 미리 알려 줘야 한다.

우리가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해왔던 읽기 과정의 흐름을 설계도 보고 설명하듯 반복적으로 설명해 주어야 한다.

학습자의 읽기 유창성을 높이고자 할 때

글자를 정확하게 읽고 바르게 소리 내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읽기 과정이다. 유창하게 소리 내어 읽을 수 있으면 읽기를 잘한다고 볼 수 있다. 유창한 읽기 수준을 갖춘 사람이 지문에 대한 이해와 파악을 잘한다고 보는 것이다. 그래서 읽기 유창성을 높이기 위해 집중적인 지도가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읽기 유창성 향상을 위한 대표적인 방법은 ‘반복 읽기’다. 글을 반복해서 읽으며 문장의 구조나 개념 등을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적절한 읽기 교재 선택이 필수라는 것이다. 학습자들이 쉽고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교재를 반복해서 읽다 보면 읽기 유창성은 자연스럽게 향상될 것이라 기대할 수 있다. 다만, 문해학습자의 경우 읽기의 유창성이 학습 시간과 정비례하여 향상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학습자의 사투리나 잘못된 발음을 교정하고자 할 때

교과서를 읽는 과정에서 종종 학습자의 발음을 교정해 주려다 애를 먹는 경우가 생긴다. 문해학습자는 대개 60년 이상 사투리나 잘못된 발음으로 구어를 사용해 왔다. 오랜 발음 습관을 단숨에 교정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 지속적인 학습 과정에서 점진적으로 발음이 교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유연하게 적용해 보기를 권장한다.

생활 경험과 연관된 학습 제재를 활용할 때

제시된 글을 읽고 중심 생각을 파악하고 기재된 정보와 지식을 습득하는 것은 반복을 통한 숙련 과정에서 축적되는 고등 기능이다. 상당 기간 동안 학습한 사람도 읽고 쓰기 수업이나 그 외 개별적인 읽기 활동을 통해 내재화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학교에서 접하는 교과서 지식 외에 개인적으로 선택해서 읽는 다양한 읽기를 통해 이 과정을 끊임없이 반복한다. 문해학습자는 그 과정을 스스로 혼자 수행하기가 무척 어렵다. 수업에서 교과서로 접하는 읽기 지문들 외에 재미있는 읽기 지문을 풍부하게 접하는 것이 그런 면에서 도움이 될 수 있다.

문해학습자의 경우 자신의 경험과 기존 지식을 동원하여 알 수 있는 내용은 금방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자신이 학습해 보지 못한 지식이나 정보들은 체계적으로 정리하기가 어렵다. 이를 능숙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메타인지능력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문해학습자에게는 자신이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스스로 검증해 보는 경험이 거의 전무하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문해학습자의 생활 전반과 조금이라도 연관된 학습 제재가 유용한 편이다. 또 지문을 통해 학습자가 자신의 상황과 주변을 좀 더 넓고 깊게 이해하게 하는 방향으로 읽기 교재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분명한 것은 다양한 읽기가 문해학습자의 읽기 능력과 문해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2부

지도의 실제

05

『술술 이야기 읽기 1: 시』

개요

1권 『술술 이야기 읽기 1: 시』는 문해학습자들의 정서에 맞는 시 40편을 선별하여 엮었다. 시는 시각적으로 짧은 글이어서 학습자들이 부담 없이 접근할 수 있다. 하지만 시에 대한 교육을 주로 교과서에 의존하여 주제, 소재, 비유 등 단순한 해석과 편중된 지식을 전달하는 형식으로 진행하면 오히려 학습자들이 시를 어렵게 느낄 수도 있다.

1권에는 대체로 학습 부담이 적은 시를 실어 교사와 함께 합창하듯이 따라 읽으며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했고, 친숙한 소재로 자신의 경험과 연결하여 시를 이해하고 감동을 느낄 수 있도록 했다. 운율에 맞춰 시를 낭송하고 감상하면서 문해학습자들이 자연스럽게 시를 읽는 즐거움에 흠뻑 빠져들기를 바란다.

구성

1부 새봄

1. 봄 편지
2. 땅감나무

3. 새봄

4. 바람의 고민
5. 감자꽃

6. 장마비 개인날

7. 별13

8. 두근두근

9. 초승달

10. 구름을 보고

2부 꽃시계

11. 꽃시계

12. 개밥그릇

13. 시계소리

14. 책자랑

15. 서울구경

16. 할아버지 안경

17. 갈어요

18. 참새

19. 망설이는 빗방울

20. 기다리던 비

3부 늦가을 편지

21. 홍시2

22. 늦가을 편지

23. 도토리들

24. 수재민

25. 바쁜 엄마

26. 없는 살림일수록

27. 어머니 약

28. 버선본

29. 재밌는 집 이름

30. 햇 보리밥

31. 잠자리

32. 할머니

33. 할미꽃

4부 내가 참 좋아

34. 난 내가 참 좋아

35. 실과 바늘

36. 물어봤어요

37. 오줌쏘개 지도

38. 편지

39. 눈은 눈은

40. 눈꽃송이

활용

문해학습자들에게 시 읽기 지도를 할 때 ‘시’라는 장르가 생소할 수 있으므로 이론적인 설명을 하기보다는 쉽고 재미있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초급 문해학습자의 경우 한글을 깨치는 과정이 진행 중이라는 점을 인식해, 시를 실감 나고 유창하게 읽는 것보다 여러 번 연습하며 자연스럽게 읽는 것을 목표로 함으로써 학습 부담으로 흥미를 잃지 않도록 한다.

시 읽기 지도는 학습자의 수준과 단계에 따라 읽기 전 단계, 읽기 단계, 읽은 후 단계로 나누어 지도 방법을 고안한다. 문해학습자들에게 시 지도를 할 때 질문과 활동을 하면 더 깊이 있는 시 읽기를 경험할 수 있다. 교사는 학습자가 자신의 생각을 더 많이 꺼내 이야기를 나누고 표현하며 시의 매력에 빠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어야 한다. 문해학습자 시 읽기 지도를 할 때 효과적인 방법을 소개해 본다.

시 읽기 전 활동

- ① 시의 제목을 보고 시 내용 연상, 유추하기
- ② 시를 읽고 느낌 알아보기
- ③ 모르는 시어 확인하기(낱말 뜻 확인하기)

교사의 핵심 질문

Q1. 시 삽화(제목)를 보고 어떤 느낌이 드나요?

Q2. 시를 읽고 어떤 느낌이 드나요?

(막연하게 시의 느낌을 말해 보라고 하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슬픔, 기쁨, 설렘’ 등으로 축약된 감정 언어를 제시하여 대략적인 분위기를 파악하고 느낌을 익히게 한다.)

Q3. 시에서 반복되거나 훔쳐 내는 말은 어떤 것이 있나요?

Q4. 시에서 모르는 낱말은 무엇인가요?

시 내용 파악하기

시를 읽고 떠오르는 느낌과 생각을 자유롭게 이야기해 본다. 그리고 시의 내용과 관련된 자신의 경험을 떠올려 본다.

교사의 핵심 질문

Q1. 시를 읽고 난 후 어떤 장면이 떠오르나요?

Q2. 시를 읽고 시의 상황과 관련지어 나의 경험을 떠올려 봅시다.

- 비슷한 나의 경험은 무엇이 있나요?

- 그때 나의 마음은 어땠나요?

Q3. 시에서 재미나 감동을 느낀 부분은 무엇이 있나요?

- 이유를 들어 설명해 봅시다.

Q4. 만약 시의 상황과 같은 경험을 한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 '만약'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상상해 봅시다.

시 낭송 방법

시를 읽을 때는 낭송 방법을 다양한 방법으로 하여 시 읽기에 재미를 붙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때 유의해야 할 점은 학습자의 수준에 따라 교사의 지도 방법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다.

▶ 초급 단계의 학습자일 경우

① 문해학습자 수준에 적합한 시를 선택한다.

② 교사가 먼저 읽고 합창하듯 함께 읽는다.

- ③ 같은 자료를 반복해서 소리 내어 읽는다.
- ④ 읽기 어려운 낱말은 또박또박 소리 내어 여러 번 읽는다.
- ⑤ 시의 리듬을 살려 낭송하는 것보다 정확하게 알맞은 속도로 읽는다.
- ⑥ 읽기 오류에 대한 지속적이고 긍정적인 피드백을 제공한다.

▶ 중급 단계 이상의 학습자일 경우

- ① 시의 분위기 익히기: 먼저 교사가 읽고 함께 따라 읽기를 한다. 이때 학습자의 수준에 따라 한 호흡씩 끊어 읽기, 다 함께 읽기, 연으로 나누어 읽기, 감각적 표현을 실감 나게 살려 읽기 등 다양한 방법으로 운율에 맞춰 시를 낭송한다. 시를 읽고 어떤 느낌이 드는지 구체적으로 말해 보고 시의 대략적인 분위기를 익히게 한다.
- ② 시의 감정 표현하기: 시마다 다른 느낌들을 살려 각자 낭송해 본다. 처음엔 지나치게 과장해 연습하다가 차츰 조절해 나간다. 이때 띄어 읽기와 쉬어 읽을 부분을 찾게 하고 의미 단위로 끊어 읽는 부분을 정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교사는 두 가지 방법으로 시를 낭송한다. 첫 번째는 시를 리듬 없이 또박또박 읽어 주는 것이다. 두 번째는 감정과 리듬을 넣어 낭송하는 것이다. 두 가지를 비교하여 느낌이 어떤지 말해 보도록 한다. 학습자들도 각자 시 낭송을 해 보고 밝은 느낌, 또는 슬픈 느낌 등을 잘 표현한 학습자를 따라 연습하게 하면 감동을 주는 시 낭송을 할 수 있다.
- ③ 시의 리듬 익히기: 시를 단조롭지 않게 낭송하기 위해 시의 어느 부분에 감정이 최고조에 있는지 찾아보게 한다. 그런 다음 연과 행의 짜임을 전체적으로 살펴본 후에 어느 부분을 강조할 것인지 높낮이를 설정하게 한다. 처음부터 음을 세고 강하게 하는 것은 어울리지 않음을 느끼게 한다. 중요한 부분은 ‘천천히, 크게, 또박또박’ 힘을 주어서 낭

송하는 것이 좋고, 다른 부분은 조금 빠르고 평범한 톤으로 읽는다. 간혹 사투리로 시 낭송을 하는 경우 억양에 유의하며 말맛을 살려 낭송하면 문해학습자만의 정겨움과 재미를 주는 시 낭송이 될 수 있다. 시 낭송은 자신의 개성을 살려 전체적으로 자연스럽게 느껴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 ④ 자기만의 시 찾기: 시를 낭송하다 보면 시 속에 나타난 많은 정서들이 우리의 감정을 풍부하게 한다. 문해학습자들의 정서에 맞는 시를 골라 수시로 낭송을 즐기게 되면 이를 억지로 강조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체득하기 마련이다. 자신의 연령과 정서에 잘 맞는 시를 골라 연습을 하게 되면 그에 익숙해지고 자신감을 얻어 분위기에 맞게 시 낭송을 할 수 있게 된다. 유명 시인의 작품이나 전국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수상 작품 중에서 마음에 드는 시를 골라서 암송하거나 자신이 직접 쓴 시를 암송한다면 어떤 성악가의 노래, 어떤 배우의 연기보다 긴 여운과 공감을 줄 것이다.

시 읽은 후 활동

시를 읽고 감상문을 쓰도록 강요하는 것은 책을 멀리하게 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시를 읽은 후 활동은 시를 읽고 느낀 내용이나 감동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게 하는 데 기본적인 목적이 있으므로 학습자의 수준과 단계에 맞춰 학습자들이 하고 싶은 활동을 선택해서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① 시를 읽고 시에 어울리는 그림 그리기: 시화 그리기는 문해학습자들이 어려워할 수 있으므로 미리 어울리는 단순한 그림 샘플을 준비하여 보고 그리게 할 수도 있다.

- ② 마음에 드는 시를 골라 베껴 쓰기: 교사가 유인물을 준비하여 과제 활동으로 해도 좋다.
- ③ 간직하고 싶은 나의 시 필사하기: 좋아하는 시를 골라 필사하거나 직접 쓴 시를 모아 나만의 작은 시집을 만든다.
- ④ 작은 시 낭송회: 모둠 또는 반별로 작은 시 낭송회를 해 본다. 이때 시와 어울리는 음악을 준비하고 둥글게 앉거나 자리를 자유롭게 배치하여 시를 감상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이끈다.

지도 시 유의할 점

시 낭송 지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방법으로 읽든지 자기의 감정에 따라 읽게 하는 것이다. 이때 실수하거나 잘못 발표할 수도 있음을 인정하고 허용적인 분위기를 조성한다. 혹시 실수했을 때 반 구성원들이 웃거나 빈정거리지 않게 하여 학습자의 자존감을 지켜 주는 것이 중요하다.

06

『술술 이야기 읽기 2: 옛이야기』

개요

2권에는 다양한 옛이야기들을 담았다. 우리나라의 옛이야기를 비롯하여, 이솝우화와 외국 동화를 성인문해학습자들의 정서를 고려해 선별했다. 널리 알려진 이야기들이지만 성인문해학습자의 눈높이에 맞춘 텍스트는 드물기에 어휘 선정과 문장 표현을 유념하며 각색 작업을 거쳤다.

이야기는 학습자의 능동적인 감상과 반응을 가능하게 하고, 이야기와 등장인물에 대한 공감을 이끌어 낸다. 즉, 이야기를 읽음으로써 학습자들은 자신과 타인을 성찰하고 이해하는 과정을 겪으며 삶의 지평을 확장해 간다. 아울러 타인과 이야기를 함께 읽고 상호 작용하는 과정은 학습자들로 하여금 깊이 있는 사고를 경험하게 하고, 독해 능력을 향상시키는 기회가 된다.

성인문해학습자들은 그간 축적한 삶의 경험이 풍부하다. 그러므로 이야기 읽기 시간은 성인문해학습자들에게 자신들의 삶을 회상하고 연결하는 적극적인 읽기 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다. 무엇보다 학습자들이 이야기 읽기를 통해 몰입하여 글을 읽는 재미 또한 느껴 나가기를 바란다.

구성 및 주요 내용

1부 이솝우화

1. 포도밭에 보물을 숨겨 놓은 농부

죽음을 앞둔 농부는 자식들이 염려되어 자식들에게 포도밭에 보물을 숨겨 놓았다고 말한다. 농부의 지혜 덕에 자식들은 잘 살게 된다.

2. 개미와 비둘기

개미는 자신의 목숨을 구해 준 비둘기에게 은혜를 갚는다.

3. 여우와 두루미

여우와 두루미는 서로를 집에 초대하고 음식을 베푼다. 각자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그릇 모양을 통해 상대방에 대한 배려를 배우게 된다.

4. 곰과 두 친구

사이좋은 두 친구는 등산 중에 곰을 만난다. 그때 한 친구가 혼자서만 달아난다. 결국 두 친구의 사이는 틀어진다.

2부 우리나라 옛이야기 (1)

5. 해와 달이 된 오누이

호랑이를 피해 하늘로 올라간 오누이는 해와 달이 되었다.

6. 금덩이보다 소중한 것

한 총각이 금덩이를 잃어버렸는데, 주막집 주인이 금덩이를 찾아 주었다. 나중에 총각은 금덩이를 가지고 주막집 주인의 아들을 구한다.

7. 신기한 향아리

물건을 넣기만 하면 자꾸 자꾸 생기는 신기한 향아리가 있었다. 이 향아리를 탐낸 원님은 결국 벌을 받는다.

8. 딸랑 귀신

한 선비가 산에서 호랑이를 만났다. 호랑이의 꼬리에 방울을 달고, 딸랑 귀신이라고 말하는 지혜를 발휘한 덕분에 선비는 목숨을 구한다.

9. 오성과 한음: 우정의 시작

지혜로운 한음을 보고 마음에 든 오성은 한음과 친구가 된다.

10. 오성과 한음: 감나무 이야기

옆집의 담을 넘어 자란 감나무를 옆집에서 마음대로 하자, 오성이 지혜를 발휘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11. 오성과 한음: 암탉이 된 한음

임금님이 오성과 한음의 재치를 시험하고, 오성과 한음은 이를 무사히 통과한다.

12. 황희 정승과 두 마리 소

황희 정승이 소를 키우는 늙은 농부와의 대화를 통해 늘 언행을 조심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는다.

13. 안동 하회탈

마을의 우환을 없애기 위해 허 도령이 탈을 만든다. 하지만 탈을 만드는 모습을 본 처녀 때문에 허 도령은 결국 죽게 된다.

14. 청백리 이후백

청렴한 이후백에게 친척이 벼슬 자리를 부탁하자 이후백은 명단에서 친척의 이름을 지워 버린다.

15. 사명대사와 서산대사의 대결

사명대사는 서산대사와 도술 실력을 겨룬다. 승부 끝에 사명대사는 자신보다 실력이 더 뛰어난 서산대사의 제자가 된다.

3부 우리나라 옛이야기 (2)

16. 단 방귀 장수

동생은 단 방귀를 팔아 부자가 되었다. 이를 시기한 욕심쟁이 형은 원님에게 단 방귀가 아닌 똥을 싸게 되고 줄행랑을 친다.

17. 고수레에 얹힌 사연

고씨 부인의 묘를 돌봐 주는 이들이 흉년에서 벗어나자, 사람들은 고씨 무덤을 향해 “고씨네” 하면서 음식을 바쳤다. 이 말이 나중에 고수레가 되었다.

18. 송아지와 바꾼 무

착한 농부는 커다란 무를 원님에게 바치고 송아지를 받는다. 욕심쟁이 농부가 그 얘기를 듣고 원님에게 송아지를 바치쳤으나 무를 받았다.

19. 신기한 재주로 도둑 떼를 물리친 전우치

전우치가 나라에 나타난 큰 도둑 떼를 도술로 물리친다.

20. 견우와 직녀

견우와 직녀가 일을 게을리 자 이별하게 되는 벌을 받는다. 까치와 까마귀가 이 둘 사이에 오작교를 놓아 준다.

21. 소금이 나오는 땃돌 1

임금님에게는 말하면 무엇이든 나오는 요술 땃돌이 있었다. 땃돌 이야기를 알게 된 도둑은 땃돌을 훔치고 배를 타고 도망갔다.

22. 소금이 나오는 땃돌 2

땃돌을 훔친 도둑은 땃돌에서 소금이 나오게 하다가 욕심을 부려 땃돌과 함께 바다에 빠진다.

23.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귀가 자꾸 커지는 비밀을 갖고 있는 임금님이 있었다. 왕관 장인은 임금님의 왕관을 만들면서 그 비밀을 지키다가 병에 걸린다. 결국

대나무 숲에 가서 크게 소리친다.

24. 시골 쥐와 서울 쥐

서울 쥐의 초대를 받고 서울로 간 시골 쥐는 서울에서 여러 위기를 겪는다. 결국 자신의 시골집이 최고라고 느끼며 집으로 돌아간다.

25. 손톱 먹은 둔갑 쥐

젊은이는 자신의 손톱을 먹고 변신한 둔갑 쥐 때문에 집에서 쫓겨났다. 스님 덕분에 젊은이는 둔갑 쥐를 물리친다.

26. 젊어지는 샘물

작한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젊어지는 샘물을 마시고 젊어진다. 이를 본 욕심쟁이 할아버지는 샘물을 너무 많이 먹어 아기가 되었다.

27. 흥부와 놀부: 복을 받은 흥부

새끼 제비에게 박씨를 선물로 받은 흥부는 복을 받아 좋은 집에서 잘 먹고 잘 살게 되었다.

4부 외국 동화

28. 돌멩이 수프

떠돌이 두 청년이 한 마을에 도착해서 돌멩이 수프를 만들었다. 돌멩이 수프 덕분에 마을 사람들은 나눔의 온기를 깨닫게 된다.

29. 성냥팔이 소녀

성냥을 팔던 한 소녀가 추위에 떨다 성냥을 켜고, 여러 가지 환상을 보며 행복해한다. 하지만 그 다음날 소녀는 추위와 배고픔을 이기지 못하고 죽게 된다.

30. 벌거벗은 임금님

사치를 좋아하는 임금님은 사기꾼들에게 깜박 속아 벌거벗은 채로 행진하고, 이를 본 사람들은 박장대소한다.

활용

성인문해학습자들을 대상으로 이야기 읽기 지도를 할 때는 읽기 전 단계, 읽기 단계, 읽은 후 단계로 나누어 지도 방법을 고안한다. 읽기 전 단계에서는 학습자들의 배경지식을 활성화하고, 호기심을 자극하며, 낯선 어휘 학습하기 등의 활동을 한다. 읽기 단계에서는 성인문해학습자들이 글을 소리 내어 유창하게 읽어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좋다. 인물의 심경과 감정에 따라 분위기를 살려 생생하게 읽어 보도록 한다. 읽기 중 과정에서 반응을 끌어내는 지도는 성인문해학습자들의 이해와 집중에 방해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는 것이 좋다. 마지막으로 읽기 후 활동에서는 학습자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읽기 전략들을 활용하여 다양하고 흥미로운 활동을 하도록 한다.

읽기 전 활동

이야기를 읽기 전에는 학습자들의 배경지식을 활성화하며 흥미를 불러일으키는 것이 좋다. 또한 학습자들이 어려운 낱말로 인해 이야기 이해에 어려움을 느낄 수도 있으니 모르는 낱말은 미리 확인하고 이야기를 읽는 것이 중요하다.

- ① 제목과 관련한 배경지식 활성화하기: 제목에 등장하는 단어를 보고 떠오르는 생각을 이야기하거나, 관련된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해 보거나, 이야기를 들어 본 적이 있는지 나눠 본다.
- ② 이야기의 등장인물과 내용 예측해 보기: 제목을 보고 등장인물과 이야기 진행 내용을 예측해 본다.
- ③ 낯선 어휘 풀이하기: 교사가 학습자들이 어려워할 것 같은 어휘를 고

려해서 뜻을 알려 준다.

읽기 전 활동 예시: <소금이 나오는 맷들>

제목과 관련한 배경지식 활성화하기

Q1. '소금' 하면 무엇이 떠오르나요?

Q2. 맷들을 사용해 본 적이 있나요?

Q3. 이 이야기를 들어 본 적이 있나요?

읽기 활동

읽는 것을 좋아하고 읽는 기쁨을 느끼는 학습자들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루해하지 않도록 읽기를 지도하려면,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해야 한다.

- ① 학습자가 교사의 도움이 필요 없을 정도의 수준의 글이라면 혼자서 조용히 책을 읽게 한다.
- ② 협동적 읽기의 방식으로 학습자들이(짝끼리, 모둠끼리) 소리 내어 혹은 조용히 읽는다.
- ③ 교사의 질문에 따라 필요한 단어나, 문장, 단락을 읽는다. 예를 들어 '기억이 들어간 단어들만 읽어 주세요'나 '홍내 내는 말이 들어간 문장을 찾아 읽어 주세요'라고 하면 학습자들이 찾아서 읽기를 할 수 있다.
- ④ 교사가 먼저 크게 읽으면 학습자들이 책을 보고 따라 함께 읽기를 한다.

읽기 수업 지도를 위한 팁

읽을거리를 학교 곳곳에 비치해서 누구든지 손쉽게 읽을 수 있게 하고, 출력을 할 때는 글자 크기를 16포인트 이상으로 하는 것이 좋다.

- ⑤ 문장이 너무 어렵거나 배경지식 설명이 필요할 때 교사가 우선 크게 교재의 내용을 읽어 주고 학생들은 듣는 방식으로 지도한다.

읽기 후 활동

이야기를 읽은 후에는 줄거리만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읽기 전략을 통해 학습자들의 다양한 감상을 자극하는 것이 글 이해에 도움이 된다. 인물이나 장면에 대한 반응, 자신의 경험 연결하기, 역할극 하기 등과 같이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학습자들이 흥미롭게 이야기를 감상하고 표현해 가도록 한다.

- ① 인물의 특징 파악하기: 등장인물의 성격이나 가치관, 신분 등을 파악해 본다.
- ② 인물의 감정과 생각을 이해하기: 만약 내가 등장인물이었다면 어떻게 했을지 상상해 볼 수 있다.
- ③ 인물 평가하기: 등장인물의 행동이나 가치관에 관한 토론을 진행해 본다.
- ④ 이야기의 주제 파악해 보기
- ⑤ 이야기와 자신의 경험 연결하기: 등장인물과 비슷한 상황에 놓였던 적은 없는지, 등장인물과 같은 행동을 한 적은 없는지 등에 관해 이야기를 나눠 본다.
- ⑥ 인상적인 부분에 대한 이야기 나누기 또는 그림으로 그리기
- ⑦ 가족에게 이야기 읽어 주기: 손주에게, 자녀에게, 남편에게 동화를 실감나게 읽어 주도록 과제를 제시한다. 과제를 통해 자연스럽게 유창하게 읽기 연습을 할 수 있고, 읽기에 대한 자신감이 커지고 재미를

느끼게 된다.

⑧ 역할극 하기: 가장 인상 깊은 이야기의 일부분을 대본으로 만들어 송년회나 수료식 때 특별 공연을 해도 좋다.

⑨ 뒷이야기 상상하기

읽기 후 활동 예시: <흥부와 놀부>

인물의 감정과 생각을 이해하기

Q1. 끝없는 욕심 때문에 모든 걸 잃은 놀부를 흥부가 집으로 데리고 왔어요. 놀부 부인과 흥부 부인은 각각 어떤 입장이었을까요?

인물 평가하기

Q1. 욕심쟁이 형님이 쫓아낸다고 식구들을 데리고 나온 흥부의 행동은 잘한 일일까요?

Q2. 놀부에게 사정을 하면 같이 살 수 있었을까요?

이야기와 자신의 경험 연결하기

Q1. 내가 흥부처럼 누군가를 도와준 적이 있다면 언제였나요?

지도 시 유의할 점

이야기에는 여러 인물들이 등장한다. 그리고 인과 관계를 바탕으로 내용이 진행되기 때문에 학습자들은 유창하게 읽기에 집중하다가 자칫하면 내용의 흐름을 놓칠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교사가 인물들의 관계나 발화를 정확하게 짚어 주고, 앞의 이야기를 정리해서 학습자들에게 다시 상기시켜 주고 이어 나가는 것이 좋다. 또한 학습자들의 다양한 반응을 격려하면서 교사와 동료들과 상호 작용하도록 한다면 학습자들의 이해의 폭은 더욱 넓어질 것이다.

개요

3권에는 서울의 과거와 현재 이야기를 담았다. 예부터 수도였던 서울의 지리와 역사를 훑어보고 우리에게 친숙한 서울의 음식 골목과 식문화를 생생하게 탐방한다. 익숙한 생활 공간인 서울이 과거에는 어떤 모습이었고, 지금과 무엇이 같고 다른지 알아본다. 익숙한 서울을 새롭게 보며 과거에서 오늘을 돌아볼 수 있다.

문해학습자들에게는 서울의 과거가 생소한 이야기로 다가갈 수 있고 흥미로운 이야기로 전해질 것이다. 또 역사와 지리에 대한 지식을 넓히며 생활 공간과 식문화에 대한 이해도 활자로 재확인하게 될 것이다.

구성

1부 서울의 궁궐 이야기

1. 조선의 수도, 한양

한양이 조선의 수도가 된 이유, 궁궐의 의미, 구성 요소, 첫 건축 시기를 알아본다. 역대 조선 왕조의 왕들의 수를 알아본다. 서울의 성

곽과 사대문의 첫 건축 시기, 사대문의 이름을 알아본다.

2. 서울의 다섯 궁궐

다섯 궁궐에 붙여진 이름의 의미, 역사, 특징을 알아본다.

3. 궁궐에서의 생활

임금의 하루를 통해 조선 왕조 왕의 업무, 식사 모습, 고충, 왕의 건강을 확인하는 방법을 알아본다.

4. 왕실의 결혼

왕실의 혼인 진행 과정을 알아본다.

5. 궁녀들의 생활

왕실의 의식주를 책임지는 궁녀들의 모습과 아픈 사람을 치료하는 궁녀인 의녀에 대해 알아본다.

2부 서울의 역사 이야기

6. 서울의 이름

서울이 서울이라는 이름을 갖게 된 유래와 시대에 따른 서울의 다른 이름들을 알아본다.

7. 서울의 역사

시대에 따라 달라진 서울의 모습과 발전 과정을 알아본다.

8. 서울의 길 이름

서울의 지명과 길 이름의 유래를 알아본다.

9. 민족의 자존심을 새긴 길

한국의 위대한 위인들과 그 위인들의 이름이 붙은 길에 대해 알아본다.

3부 서울의 음식 골목

10. 마포 돼지갈비 골목

돼지갈비의 유래와 마포 돼지갈비 골목의 모습을 살펴본다.

11. 신림동 순대 골목

순대의 유래와 신림동 순대골목의 모습을 살펴본다.

12. 남대문 갈치조림 골목

남대문 갈치조림 골목의 모습을 살펴본다.

13. 오장동 냉면 골목

냉면의 유래와 오장동 냉면 골목의 모습을 살펴본다.

14. 신당동 떡볶이 골목

떡볶이의 유래와 신당동 떡볶이 골목의 모습을 살펴본다.

15. 을지로 골뱅이 골목

골뱅이 음식의 유래와 을지로 골뱅이 골목의 모습을 살펴본다.

4부 한국의 밥상 이야기

16. 밥 힘으로 산다

밥의 의미와 밥 짓는 방법과 종류, 관련 표현을 알아본다.

17. 국물이 있어야 한다

국물 요리의 종류와 각각의 차이점을 알아본다.

18. 채식이 좋다

한국의 대표 반찬인 김치와 나물을 알아본다.

19. 함께 먹는다

밥상에 다양한 종류의 음식을 한꺼번에 차려 먹는 이유를 알아본다.

활용

3권은 대상에 대해 설명하거나 지식 또는 정보를 다루는 글로 구성되어 있다. 설명문 형식이기 때문에 무엇을 설명한 글인지 알아 가고, 읽고 나서 사실을 파악하는 것을 주요하게 다룬다. 읽기 과정을 읽기 전, 중, 후로 나누고 각 과정에서 다룰 내용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읽기 전 활동

읽기 전 활동은 해당 주제나 제재에 대해 학습 동기를 유발하고 읽을 글에 흥미를 갖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먼저 전체 글의 목차를 확인하고 무엇에 대한 글일지 생각한다. 그리고 수업에서 다룰 글의 제목을 보고 그와 관련해 자신이 아는 것이 무엇인지 이야기 나누며 사전 지식을 확인한다. 그 후 해당 주제에 대해 자신이 알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고 무엇을 배울지 유추해 보도록 한다. 그러면서 문해학습자는 글에 대한 흥미를 갖게 된다.

- ① 전체 목차 확인하기
- ② 목차 제목 확인하기
- ③ 글 제목을 보고 내가 아는 지식 말해 보기
- ④ 글 제목을 보고 해당 주제에 대해 알고 싶은 것 생각해 보기
- ⑤ 학습 내용 유추해 보기

읽기 중 활동

실제 글을 읽는 과정에서 세 가지 부분에 주의를 기울인다. 첫째, 무엇을 설명한 글인지 파악하는 것이다. 글을 읽고 핵심어를 찾도록 지도하거나

설명 대상과 관련된 내용을 주의 깊게 읽고 찾도록 한다. 읽는 과정에서 교사가 학습자에게 질문을 하여 주요 내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준다.

둘째, 중요한 내용을 간추리는 것이다. 이를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다음 요소들을 고려한다.

- ① 문단을 나눈다.
- ② 중심 내용과 세부 내용을 파악한다. 메모하기, 줄긋기, 손가락 활용 중심 내용과 세부 내용 쓰기,¹⁾ 수레바퀴 활용 중심 내용과 세부 내용 쓰기²⁾ 등이 효과적이다.³⁾
- ③ 필요 없는 글은 삭제하며 읽는다.
- ④ 글의 구조를 파악한다. 글의 내용이 나열적인지, 인과 관계를 담고 있는지, 비교나 대조 관계인지, 시간 순서에 따른 구조인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구성인지 살펴본다.

셋째, 글을 읽고 요약하는 것이다. 요약하기는 글을 읽고 이해하는 과정에서 핵심적이다. 하지만 단번에 되지 않고 문해학습자의 경우 더 어렵게 생각할 수 있다. 교사가 직접 보여 주고 꾸준한 활동을 통해 연습해 본다. 글을 요약하기 위해서는 중심 문장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중심 문장은 문단 단위의 중심 문장과 글 전체의 중심 문장으로 나눌 수 있다. 다음과 같은 순서를 따르면 좋다.

1) 다섯 손가락을 편 손 모양의 그림에서 손바닥에는 중심 생각을, 손가락에는 세부 내용을 쓰는 것을 말한다.

2) 수레바퀴 모양의 그림에서 가운데 원에는 중심 생각을, 바퀴 살 사이의 공간에는 세부 내용을 쓰는 것을 말한다.

3) 신현재 외(2005). 『초등 국어과 교수 학습 방법』. 박이정.

- ① 문단을 나누고 중심 문장을 찾는다.
- ② 주요 단어 중에서 상위어를 찾아 정리한다.
예: 사과, 배, 수박의 상위어 '과일'
- ③ 문단에서 찾은 중심 문장을 연결한다.
- ④ 중심 문장끼리 관계를 지어 본다.
- ⑤ 전체 글의 내용을 요약하기 위해서 연결한 중심 문장을 정리하거나
상위어 등을 써서 요약 문장으로 완성한다.

읽기 후 활동

대상을 설명한 글은 제시된 내용을 정확히 파악했는지 확인한다. 이때 퀴즈 형식을 활용하면 즐겁게 활동할 수 있다. 학습 활동지를 활용하거나 몸을 써서 OX 퀴즈 형식을 활용할 수도 있다. 또 어떤 것을 알게 되었고 주요 내용이 무엇인지 말하기를 해 볼 수 있다. 이때 학습자들이 말하기 어려워할 수도 있으므로 교사가 시범을 보여 주는 것도 좋다. 학습 내용을 오래 기억하기 위해 학습 내용과 관련된 그림을 그리거나 관련 대상에 대해 자기 경험을 소재로 글을 써서 지식을 통합하는 과정으로 이어 갈 수도 있다.

- ① 글의 내용 확인을 위한 OX 퀴즈 풀기 또는 활동지 풀기
- ② 글의 내용을 복기하는 말하기 활동
- ③ 학습 제재와 관련된 그림 그리기 또는 대상 관련 자기 경험 글쓰기

지도 시 유의점

글을 읽고 내용 파악을 하는 것은 고도의 능력이다. 훈련과 연습이 필요하다. 그래서 문해학습자에게는 단순한 사실 관계를 묻고 답하는 것조

차도 어려운 일일 수도 있다. 그러므로 정확한 답을 하지 못하거나 요약하기 등을 수행하지 못하더라도 자존감이나 자신감을 떨어뜨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지식의 보물을 즐겁게 찾도록 지도하자.

부록

1권 수업 지도안 예시

단원		3. 새봄	
학습주제		시의 내용에 공감하며 낭송하기	
학습목표		시를 낭송하고 시의 느낌과 특징을 알아본다.	
학습 과정	학습 내용	교수·학습 활동	자료 및 유의점
도입	학습 동기 유발	학습 동기 유발 질문하기 • ‘봄’ 하면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 ‘봄’과 관련된 경험이나 느낌을 떠올려 보고 이야기해 본다.	
전개	사전 활동 / 내용 파악 / 시 낭송	1. 시 읽기 전 활동 • 시 느낌 알기 - 시의 제목을 보고 시의 내용을 유추해 본다. - 시 제목을 보고 시의 내용을 유추해 본다. - 모르는 낱말을 찾아 풀이하여 학습한다. • 시의 분위기 느끼기 - 어떤 분위기인가요? 예) 밝은, 어두운, 따뜻한, 설레는, 안타까운 • 반복되는 말을 찾아보고 느낌 알아보기 예) 새봄이 온다 / 부르며 온다 - 노래하는 느낌, 리듬감이 느껴진다. 2. 시의 내용 파악하기 • 시와 관련된 나의 경험 나누기 - 시를 읽고 나의 경험은 무엇이 있나요? - 그때 나의 마음은 어떠했나요? • 시에 표현된 시인의 마음 말해 보기 • 시에서 의인법을 사용한 부분 찾기 • 시에서 재미나 감동을 느낀 부분 찾기 3. 시 낭송하기 • 시의 감정 표현하기 - 교사가 먼저 운율을 살려 시를 낭독하고 학습자들이 따라 읽는다.	※ 친구가 발표할 때는 잘 듣도록 한다. ※ 친구가 실수하거나 잘못 낭송하더라도 웃거나 빈정거리지 않도록 주의한다.

학습 과정	학습 내용	교수·학습 활동	자료 및 유의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의 감정과 느낌을 살려 낭송한다. • 시의 리듬 익히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띄어 읽을 부분과 쉬어 읽을 부분을 찾아 표시하고 교사가 시범을 보인다. - 중요한 말은 ‘천천히, 크게, 또박또박’ 자연스럽게 읽고 다른 말들은 조금 빠르게 뭉쳐서 읽는다. - 맛깔 나는 사투리 억양으로 말맛을 살리며 낭송한다. • 시에 공감하며 낭송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별로 낭송하고 시 감상하기 - 발표한 학습자의 시 낭송을 듣고 각자의 의견을 발표한다. <p>4. 읽은 후 활동(시간이 부족하면 과제로 대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를 읽고 어울리는 그림 그리기 • 마음에 드는 시를 골라 베껴 쓰기 <p>5. 심화 학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인의 생애 알아보기 	
정리	학습내용 정리 / 차시에고	<p>1. 학습 내용 정리하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업한 내용을 교사가 간단히 정리한다. <p>2. 과제 및 다음 차시 수업 안내 등</p>	

2권 수업 지도안 예시

단원		27. 복을 받은 흥부	
학습주제		- 흥부 놀부 이야기 내용 파악하기 - 이야기 속 상황에 대한 자신의 생각 말하기	
학습목표		- 이야기의 내용을 이해하고 실감나게 읽을 수 있다.	
학습 과정	학습 내용	교수·학습 활동	자료 및 유의점
도입	학습 동기 유발 / 배경 지식 활성화	1. 학습 동기 유발 질문하기 • 배경지식 활성화: 질문을 통해 배경지식을 활성화하고 이야기의 전개에 대한 궁금함을 유발한다. - 흥부와 놀부 이야기를 들어 보았나요? - 흥부의 자식은 몇 명일까요? - 제비 새끼의 다리를 부러뜨린 것은 무엇이였을까요? - 몇 번째 박에서 쌀이 나왔을까요? • 교재에는 흥부가 제비 다리를 고쳐 주고 이듬해 봄에 제비가 돌아와 흥부 집에 박씨를 떨어뜨려 준 이야기부터 실려 있음을 안내함	발표 시 칭찬과 박수로 적극적 분위기 만들기
전개	다양한 읽기 / 줄거리 및 내용 파악 / 의견 발표 / 심화 학습	1. 이야기 읽기 • 교사가 읽고 학습자가 따라 읽기 • 흥미 유발을 위해 중간 질문을 한다. - 첫 번째 박에서는 뭐가 나왔어요? • 질문에 따라 필요한 단락 읽기 - 흥부네 가족이 배불리 밥을 먹었는지 마지막 두 문장을 다 같이 읽어 봅시다. 2. 이야기의 흐름과 내용 파악 • 이야기의 내용 파악하기 - 오늘 복을 받은 흥부 이야기에는 누가 나왔어요? - 제비 새끼는 흥부의 집에 무엇을 떨어뜨려 주었어요? - 흥부는 처음에 박이 크면 잘라서 무엇을 하려	※ 이야기 읽기 시 이야기 상황을 생각하며 실감나게 읽을 수 있도록 한다. ※ 교사의 질문에 답하고 의견을 발표할 때 학습자들이 골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 질문의 답을 못 찾을 때는 몇 쪽 몇 번째 줄에 답이 있는지 알려

학습 과정	학습 내용	교수·학습 활동	자료 및 유의점
		<p>고 했어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박을 탈 때 노래를 어떻게 불렀어요? - 첫 번째 박을 탔을 때 아이들이 왜 실망을 했어요? - 어린아이가 무엇을 들고 나왔나요? - 두 번째, 세 번째 박에서 나온 것이 무엇인지 알려 주세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줄거리 요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자 스스로 읽기(목독) - 교사가 줄거리를 정리하여 들려주기 <p>3. 낱말 및 어휘 파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낱말 및 어휘력 향상을 위한 읽기와 쓰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려운 낱말이 있는지 질문을 한다. - 낱말 풀이를 한다. - 주요 문장 판서 후 읽고 쓰기 <p>4. 자신의 생각 이야기하기/인상적인 부분 이야기 나누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자 참여와 발표를 통해 배움을 나누도록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딱 한 가지 악을 준다면 어떤 악이 필요하세요? - 인상적인 부분이나 재미있던 장면은 어떤 것이 있었나요? -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p>5. 심화 학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흥부가 판소리 한 대목 듣기 	<p>준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표 시 칭찬과 긍정적 피드백을 준다. ※ 심화 학습 시 판소리 영상 또는 음성 자료를 준비한다. ※ 심화 학습으로 교사가 이야기를 대본으로 각색하여 송년회나 수료식 때 연극으로 해보기를 제안할 수 있다.
정리	내용 정리 / 차시예고	<p>1. 수업 내용 정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읽기를 통한 내용 정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락별 학습자가 읽기 - 주요 문장 읽기(판서한 내용) <p>2. 과제 제시 및 차시 예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박 그림

학습 과정	학습 내용	교수·학습 활동	자료 및 유의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제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을 받은 흥부: 상황을 생각하며 실감 나게 읽기 - 박 그림 도안에 박을 탔을 때 나왔으면 하는 것 그려 보기 - 박 타는 장면 그림 색칠하기 - 흥부 부인 또는 제비에게 쓰고 싶은 말 쓰기 (두세 줄 정도) - 가족에게 이야기 읽어 주기 • 다음 차시 예고 	

3권 수업 지도안 예시

단원		3. 서울의 길 이름 유래	
학습주제		서울의 지명과 길 이름의 유래	
학습목표		서울의 지명이 생겨난 유래를 알아본다. 서울의 길 이름이 생겨난 유래를 알아본다.	
학습 과정	학습 내용	교수·학습 활동	자료 및 유의점
도입	학습동기 유발	1. 학습 동기 유발 질문하기 • 배경지식 활성화: 질문을 통해 배경지식을 활성화하고 학습 주제에 대한 궁금함을 유발한다. - 서울을 대표하는 산인 남산은 왜 남산이라고 부를까? - 자신이 알고 있는 서울의 구 이름은 무엇인가? - 과거 서울은 어디까지가 서울이었을까?	
전개	사전활동 / 배경지식 활성화	1. 단원 읽기 • 교사가 읽어 주기/따라 읽기/묵독하기 - 끊어 읽기에 유의하며 따라 읽도록 지도한다. 2. 옛 서울 지도 알아보기 • 지금의 남산과 과거 남산의 위치 비교하기 • 한강을 기준으로 과거와 현재의 서울 지도 비교하기 - 동서남북 위치를 확인한다. 3. 서울의 지명 및 길 이름 유래 알아보기 • 중요한 지명에 밑줄 치기 • 어려운 낱말 뜻 알아보기 - 예) 유래/지명/무속/국영 • 낱말 바르게 읽기 - 예: 한강로[한강노], 관련[팔련], 불여진[부처진] • 서울의 4대산과 성곽, 4대문 및 4소문 이름 알아보기 • 성곽이나 4대문에서 유래된 지명 알아보기	• 서울의 옛 지도, 서울의 현재 지도 • 남산, 4대문, 한양도성 사진 자료

학습 과정	학습 내용	교수·학습 활동	자료 및 유의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 고개 이름에서 유래된 이름 알아보기 • 강, 하천에서 유래된 이름 알아보기 • 농업, 종교와 관련된 이름 알아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찰의 이름이나 유교 관련 낱말, 신당 등의 낱말은 그 뜻을 쉽게 알려준다. - 모든 지명을 외울 필요는 없고 이름이 생겨난 배경을 이해하는 것으로 지도한다. <p>4. 자신의 경험에 대입해 보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재에 나온 지역명을 방문한 경험 이야기하기 • 자신이 사는 동네의 지명이나 산, 강이나 하천, 주요한 지명에 대해 알고 있는 것 이야기하기 • [선택] 어릴 적 살던 동네 이름의 유래 이야기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해학교가 위치한 지역명의 유래에 대해 알려줄 정보가 있다면 교사가 미리 준비한다. - 오늘 학습한 지명과 관련하여 자신의 경험을 연관짓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지명과 관련한 말하기에 중점을 둔다. 	
정리	학습내용 정리 / 차시예고	<p>1. 학습내용 정리하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늘 수업한 내용을 교사가 간단히 정리한다. <p>2. 학습내용 복습하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X 퀴즈 형식으로 오늘 학습한 내용을 다 같이 정리한다. O, X는 큰 손동작으로 표시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양도성의 동쪽 지역은 '성북이라 불렀다. (O) - 신당동은 불교와 관련된 이름이다. (X) - 관악로나 용마산길은 강이나 하천에서 생겨난 이름이다. (X) - 잠실은 과거 누에를 치던 곳이었다. (O) <p>3. 과제 제시 및 다음 차시 예고</p>	

참고 문헌

1권

- 강소천 외(2015). 『동시』. 커뮤니케이션북스.
- 강승한(2015). 『강승한 동시선집』. 지식을만드는지식.
- 강현호(2015). 『강현호 동시선집』. 지식을만드는지식.
- 공재동(2015). 『공재동 동시선집』. 지식을만드는지식.
- 권태웅(2015). 『권태웅 동시선집』. 지식을만드는지식.
- 김숙분(2015). 『김숙분 동시선집』. 지식을만드는지식.
- 남진원(2015). 『남진원 동시선집』. 지식을만드는지식.
- 문삼석(2015). 『문삼석 동시선집』. 지식을만드는지식.
- 박두순(2015). 『박두순 동시선집』. 지식을만드는지식.
- 박방희(2015). 『박방희 동시선집』. 지식을만드는지식.
- 서덕출(2015). 『서덕출 · 윤복진 동시선집』. 지식을만드는지식.
- 송재진(2015). 『송재진 동시선집』. 지식을만드는지식.
- 안학수(2015). 『안학수 동시선집』. 지식을만드는지식.
- 윤동주(2012). 『윤동주 시선 초판본』. 지식을만드는지식.
- 이혜영(2015). 『이혜영 동시선집』. 지식을만드는지식.
- 정진아(2015). 『정진아 동시선집』. 지식을만드는지식.

2권

한국어읽기연구회(2013). 『소금이 나오는 밧돌』. 학이시습; 7~22쪽.

한국어읽기연구회(2013). 『전우치전』. 학이시습; 54~60쪽.

한국어읽기연구회(2013). 『흥부놀부전』. 학이시습; 42~49쪽.

3권

한국어읽기연구회(2013). 『서울의 궁궐 이야기』. 학이시습; 3~23, 65~82쪽.

한국어읽기연구회(2013). 『서울의 음식 골목』. 학이시습; 13~18, 24~27, 43~46, 69~73, 79~84, 92~96쪽.

한국어읽기연구회(2013). 『한국의 밥상 들여다보기』. 학이시습; 3~30쪽.

서울역사편찬원(2018). 『지하철을 탄 서울史』. 서울역사편찬원. <https://history.seoul.go.kr/contents/?u=79A60B88-6F98-B8C6-768F-FC778AEDEDAC>

서울역사편찬원, 서울역사 돌아보기, https://history.seoul.go.kr/nuri/etc/sub_page.php?pidx=146674767559

서울역사박물관, https://museum.seoul.go.kr/www/NR_index.do?ss
o=ok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encykorea.aks.ac.kr/>

교사용 지도서

신현재 · 권혁준 · 김선배 · 류성기 · 박태호 · 염창권 · 이경화 · 이재승 · 이주섭 · 천정록 · 최정희(2005). 『초등 국어과 교수 학습 방법』. 박이정출판사.

한국독서학회(2021). 『독서교육의 이론과 실천』. 박이정출판사.

National Research Council(2012). Improving adult literacy instruction:

Options for practice and research, 정옥년 · 허준 · 이지혜 옮김

(2018). 『효과적인 성인문해교육을 위한 교수방법: 현장 사례와 적용』.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지은이

김수지

이소문해력연구소

김인숙

(사)전국문해기초교육협의회

박미라

열린시민터 해봄

서화진

(사)푸른사람들 부설 푸른어머니학교

